

‘맛의 도시’ 전주, 미쉐린 가이드 식당 육성

도전업체 발굴사업 간담회 개최...업체측 의사 파악·선정 비빔밥·한정식 등 전통의 맛 알리고 관광효과 시너지 기대

전주시가 ‘맛있는 전주 만들기’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맛의 도시’라는 명성에 걸맞는 식당을 발굴, 미쉐린 가이드에 오를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컨설팅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한 해 1000만명이 몰리는 ‘전통’을 테마로 한 한옥마을과 ‘맛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결합하면 시너지 관광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는 오는 24일 전주 전통문화전당에서 ‘전주 미쉐린 가이드 도전업체 발굴사업 간담회’를 열고 미쉐린 가이드에 대한 안내와 업체측 의사를 파악, 도전업체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미쉐린 가이드 서울 2017’에는 24곳의 식당이 선정된 만큼 다음에 발굴되는 한국판에는 ‘맛의 도시’인 전주지역 식당이 오를 수 있도록 컨설팅하겠다는 것이다.

미쉐린(미슐랭) 가이드는 세계 최고 권위의 식당·평가 안내서다. 시작은 1900년 미쉐린 타이어 창업자인 앙드레와 에두아르 미쉐린 형제가 운전자에게 필요한 각종 식당과 숙소에 관한 정보를 담아 무료 배포하면서다.

식당을 별(스타)로 평가하는 게 특징. 최고 등급인 별 3개는 ‘맛을 보기 위해 일부러 여행을 떠날만한 가치가 있는 식당’을 뜻한다. 별 2개는 ‘요리가 훌륭해 멀리 찾아갈만한 식당’, 별 1개는 ‘음식이 훌륭한 식당’이다.

최근 ‘미쉐린 가이드 서울 2017’에는 24곳의 식당이 선정됐고 특히 한정식이 절반이 넘는 13곳을 차지했다.

특히 간장게장이나 사찰 음식 등 대표적인 한국음식들이 선택받았다는 점에서 전주지역 도전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맛

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킬 비빔밥 전문 한정식 등을 육성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전주시 관계자는 “업체측 도전 의지가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며 “미쉐린 가이드 평가 기준을 분석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미쉐린 가이드 한국판에 전주지역 식당도 오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지을기자 dok2000@

왼쪽부터 전주의 대표적 음식인 한정식·육회비빔밥·전주백반.
(전주시 제공)



고창군 ‘말 산업 육성사업’ 선정...승마관광 추진



승마교육프로그램 운영

고창군은 19일 농림축산식품부 ‘말 산업 육성지원 사업’에 선정된 것을 계기로 농촌지역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말 산업 육성에 나서기로 했다.

군은 농어촌 지역 승마시설을 활용한 체험 승마교육프로그램(사진)을 마련해 농촌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지역 농가 수익 창출에도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군은 고창의 자연생태환경과 관광자

원을 바탕으로 해변승마, 숲 속 승마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관광승마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승용마 보험료를 지원 하는 승마산업화, 사육시설의 개보수 등을 지원하는 말 산업 시설개선사업도 펼치기로 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구시포·동호해수욕장의 10km 명사십리 일대 해안가를 말을 타고 돌아볼 수 있는 승마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지역 테마 관광자원의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박형진기자 phj@kwangju.co.kr

전주 외국인 관광객 급증 “U-20월드컵 덕 봤다”



U-20 월드컵 기간인 지난 5월 전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

(전주시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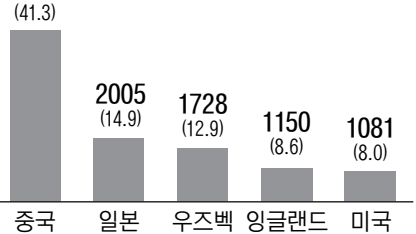
중국 관광객 5557명 찾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이슈에도, U-20 월드컵 기간 전주를 가장 많이 찾은 외국인들은 중국 관광객 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전주시의 빅데이터(1~5월) 분석 결과에 따르면 ‘FIFA U-20 월드컵’ 기간인 5월, 전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1만 7974명 중 중국 관광객들은 5557명으로, 전체의 41.3%로 가장 많았다.

일본 관광객들이 2005명(14.9%)으로 두

FIFA U-20 월드컵 기간 관광객 추이



번째로 많았고 우즈베키스탄 1728명(12.9%), 잉글랜드 1150명(8.6%), 미국 1081명(8.0%) 순이었다.

중국관광객의 경우 사드 이슈 전인 지난 1월 8372명, 2월 7404명 등이 전주를 찾았으나 이후 사드 영향을 받아 3월 5939명, 4월 4846명으로 감소했다가 5월 U-20 월드컵 기간 5557명으로 소폭 늘어났다.

U-20 월드컵 기간 전주를 방문한 전체 외국인 관광객 수도 1만7974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1만5551명)에 걸췌 15.58%(2423명)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U-20 월드컵’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도움을 줬다는 분석이 나올만하다.

/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군산시민도 가기 힘든 여청도

“여객선 반값에 탄다” 내달 15일부터 할인

등대문화유산 제 2호로 지정된 군산시 옥도면 여청도 등대를 보러 가기 쉽지 않다.

군산항과 여청도 간 70km를 오가는 여객선으로도 2시간 30분이나 걸리는데다, 배삯도 왕복 4만6000원으로 비싸 부담이 적지 않다.

군산시가 이같은 점을 들어 지역민들을 위해 여청도 여객운임비를 50% 지원하기로 했다.

군산시는 여객선 운항사인 대일종합선박과 협약을 맺고 다음달 15일부터 10월 말까지 군산시민들을 대상으로 여객선 이용료를 50%를 할인하기로 했다. 여객선 이용 부담을 줄이고 섬 관광 활성화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다.

군산시는 전북도에 건의, 내년에는 할인대상을 전북도민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여청도를 이용하는 여객선 운임 지원을 통해 섬 방문객이 많아져 섬 관광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기자 nogusu@

한국원자력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논의 워크숍



한국원자력연구원원들이 최근 토론회를 열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심층 처분 가능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제공)

한국원자력연구원들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국내 처분 가능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들은 최근 연구원 국제원자력교육센터에서 방사성폐기물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지질조건을 고려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 가능성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국내 지질조건을 고려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가능성, 향후 처분 부지 선정 조건을 모색하

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워크숍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부지 조건, 국내 심층처분 가능성 등 3개 주제로 나눠 김영서 부경대 교수, 진성우 전북대 교수, 김경수·김정우 한국원자력연구원 박사, 김유홍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방사성폐기물심층처분연구단장 등이 발표자로 나섰다.

한편, 한국원자력연구원은 1997년부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심층 처분 연구를 진행 중이다.

/정음=박기성기자·전북취재본부장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곡성 옥과를 죽림리 대지 311㎡ 은행 2500 매도 5500
- 광주에서 1시간 거리 바닷가 대지 607㎡ 팬션주택 2층주택 1억2천
- 함평 손불면 월천리 바다에서 500m 대지 1197㎡ 대형저수지부근 4200만원
- 장흥군 수문해수욕장 2896㎡ 전망좋은 2억2백
- 금매 장흥군 수문해수욕장 3548㎡ 은행 1억3천 매도 3억7천
- 화순군 동복면 기수리 1877㎡ 요양주택·사찰도 적합 6천만원

주택·원룸·아파트

- 월산동 우체국부근 골목 대지 294㎡ 정원과 주택2동 2억3천
- 월산동 재개발추진지역 대지 126㎡ 2층주택 1억4백
- 월산동 원룸 중 3층 23㎡ 독립생활적합 2100만원

투자·매도·교환

- 영암군 신북면 상업지 2535㎡ 은행4억5천 공사가 매도 5억8천
- 월파면내면 양동 상업지역 367㎡ 주상복합 적합 4억8천
- 담양군 봉산면 대지 10692㎡ 다가구·빌라·참고 적합 12억5천
- 요양병원적합 담양군 대덕면 잡종지 8451㎡ 도로여건 좋음 7억
- 월산동 보리아파트부근 1층 65㎡ 식당·사무실용 6천만원
- 충장로5가 상업지 490㎡ 다용도 가능 7억7천

상가건물

- 주월동 무등시장부근 대지 209㎡ 다가구 14세대 328㎡ 3억4천
- 남평아파트 2천세대 중심지 대지 885㎡ 층당 200평씩 공사중 16억5천
- 월산동 4차선과 2차선점 땅 129㎡ 철근조 2층상가주택 2억6천
- 충정로4가 요지 대지 261㎡ 건평 1128㎡ 전세3억 월 천만원수익 25억
- 유동 2층상가건물 대지 598㎡ 건평 334㎡ 건물 상태좋은 9억4천
- 월산동 새마을금고부근 2층상가건물 대지 226㎡ 매도 4억2천
- 월산동 농성초교내면 6세대 대지 206㎡ 건평 328㎡ 3억6천

감정가 이하

- 남구 송하동 산 22556㎡ 감정 2억5천선 은행 3천 매도 1억천
- 유동 좋은 모텔 대지 422㎡ 건평 984㎡ 감정12억선 교환가능 8억
- 무안군 일로읍 죽산리 4137㎡ 감정 2억5천선 은행 1억7600 매도 800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광양, ㄷ 근린상가

■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중동 락희호텔 근처

■ 6층 중 4층 전체, 2012년 신축

■ 210평 (실평 147평)

■ 모든업종 오픈 가능

■ 감정/시세 - 13억

■ 매매 - 7억 8천만원 (조정가)

■ 주인직매

H.010-3605-5000

부동산 투자의 답 제주에 있습니다

제주에서 현재 가장 HOT PLACE인 영어교육도시 및 신화역사공원 인근 부동산을 강력 추천합니다.

원룸

-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대 525㎡, 건물 522㎡, 방 8개 [예산연수입 85백만원] 매가 15억
-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대 430㎡, 건물 306㎡, 방 8개 [예산연수입 67백만원] 매가11억원

펜션

-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대 5,637㎡, 방 9개, 매가 14.8억 (예산연수입 1억3백만원)

전원주택

- 서귀포시 대정읍 인성리, 대 483㎡, 건물 84㎡, 매가 3.7억
-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리, 대 406㎡, 건물 67㎡, 매가 3억 [카페, 음식점가능]

토지

-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임야 4,664㎡, 계획관리, 매가 26억 [전원주택지]
-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전 2,774㎡, 계획관리, 매가 12.5억 [다가구주택, 전원주택지]
-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전 3,635㎡, 계획관리, 매가 21.9억 [전원주택지]
-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임야 5,983㎡, 생산관리, 매가 21.7억 (전원주택지)
-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전 2,777㎡, 자연녹지, 매가 10.9억 (단독주택, 펜션부지)
-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전 4,780㎡, 계획관리, 매가 16억 [산방산탄천 인근, 펜션부지]

NAVER 올레탑공인중개사 검색

26년 은행경력 노하우 올레탑공인중개사 기성후·기정근
서귀포시 안덕면 신화역사로 434 ☎064)792-8979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5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에디닝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